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연구

A Study on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Bulguksa Temple

저자 (Authors) 주경미
Joo, Kyeong-Mi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73\)](#), 2018.11, 29-68(40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73\)](#), 2018.11, 29-68(40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64766>

APA Style 주경미 (2018).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연구. 한국사학보(73), 29-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2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연구

주 경 미*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의 보수 공사
3.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발굴 경위와 연구 현황
4.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양식적 특징
5.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범사리장엄의 변화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보 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연구 현황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고이다.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1966년 석탑 안에서 발견되었으나, 2007년까지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사리장엄구 중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중수기록인 3종의 목서지편이 보존처리되어 공개되면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2-2013년 불국사 삼층석탑이 전면해체 보수공사되면서, 1966년에 봉안했던 사리장엄구들이 다시 세상에 공개되어, 그동안 미진했던 자료들이 다시 재검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 자료들을 중심으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의 양식적 특징 및 범사리장엄병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창건기인 통일신라 726년과 고려시대 중수기인 1024년, 1038년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강사

대표논저 :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 2011, 「8-11세기 동아시아 탑내 다라니 봉안의 변천」, 『미술사와 시각문화』 10 ; 2017, 「백제 위덕왕의 불교적 치세관 형성과 6세기 중국의 정세 변화」, 『韓國古代史探究』 27.

을 거쳐 전해진 유물들로서, 신라와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잊혀졌던 독특한 전통과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1. 머리말

국보 제 126호로 지정된 佛國寺 三層石塔 舍利莊嚴具 일괄품은 1966년 10월 석탑의 수리 도중에 발견된 것으로, 탑의 2층 탑신석 上面에 마련된 舍利孔 안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다. 이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발견 직후 사찰의 관리 소홀로 사리를 봉안했던 유리제 舍利瓶이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동안 위탁보관했다. 이후 2009년 종합보고서의 간행과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으며, 2018년 11월 불국사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모두 불국사로 이관되었다. 이 논문은 1966년 불국사 삼층석탑의 수리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조사 및 연구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한 新研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墨書紙片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국사 삼층석탑은 11세기 전반기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으며, 사리장엄구의 일부가 고려시대에 새로 봉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1966년 석탑을 수리할 때에 재봉안되었던 원래 사리장엄구의 일부가 2012~2013년에 행해진 석탑의 보수공사 과정에서 다시 출토되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¹⁾ 2000년대 이루어진 출토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석탑의 보수 공사를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자료들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가 처음 발견된 1966년부터 고려시대 중수 문서인 목서지편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된 2007년까지 약 40년간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모두 창건기인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으며, 이 오래된 상식은 아직도 학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의 재검토를 위한 가장 중

1) 불국사 삼층석탑의 보수 과정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10~29쪽 및 76~84쪽 참조.

요한 기초 자료는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및 목서지편들에 대한 본격적인 4권의 조사보고서이다.²⁾ 당시 확인된 목서지편의 내용에 의하면, 삼층석탑의 창건은 통일신라 경덕왕 즉위년인 742년이며, 고려시대인 1024년과 1038년에 지진으로 인하여 불국사가 큰 피해를 입어서 석탑이 대규모로 중수되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까지 불국사의 창건이 『삼국유사』에 의해서 경덕왕 10년인 751년이라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이루어졌으며, 삼층석탑을 비롯한 불국사의 건축물들이 11세기에 대규모로 중수되었음을 알려준다.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일괄품에는 고려시대의 중수품이 혼재되어 있지만, 사리장엄방식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따라서 석가모니 붓다의 身舍利 48과와 법사리로서의 경전 봉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붓다의 신사리는 여러 개의 다중 용기로 구성된 사리기 안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사리기 주변에는 각종 공양품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편, 법사리로서 봉안된 경전은 크게 두 종인데,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왕실에서 널리 숭앙했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경”으로 약칭)』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시대에 추가된 『一切如來心秘密全身寶篋印陀羅尼經(이하 “보협인경”으로 약칭)』이었다. 이 두 경전은 사리공 내의 봉안위치가 서로 달라서, 사리장엄에서의 위계, 혹은 중요도의 차이를 보인다. 두 경전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사리함 안에 봉안되어 있던 무구정경으로서, 이 경전은 창건기인 통일신라시대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의 보수공사

2)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에 대한 4권의 보고서는 권호 순으로 출간되지 않았으며, 가장 먼저 출간된 것은 제 2권이다. 이후 제 1권, 제 4권, 제 3권의 순서로 발간이 완료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발간 순서보다는 책의 권호 순서를 따라서 표기한다.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2009x, 『불국사 석가탑 유물 x』로 약칭하여 기술한다.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a,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전』, 씨티파트너 :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b, 『불국사 석가탑 유물 2-중수문서』, 씨티파트너 :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c, 『불국사 석가탑 유물 3-사리기·공양품』, 씨티파트너 :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d, 『불국사 석가탑 유물 4-보존처리·분석』, 씨티파트너.

및 사리장엄구의 발굴 경위를 살펴보고, 현존하는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구성 방식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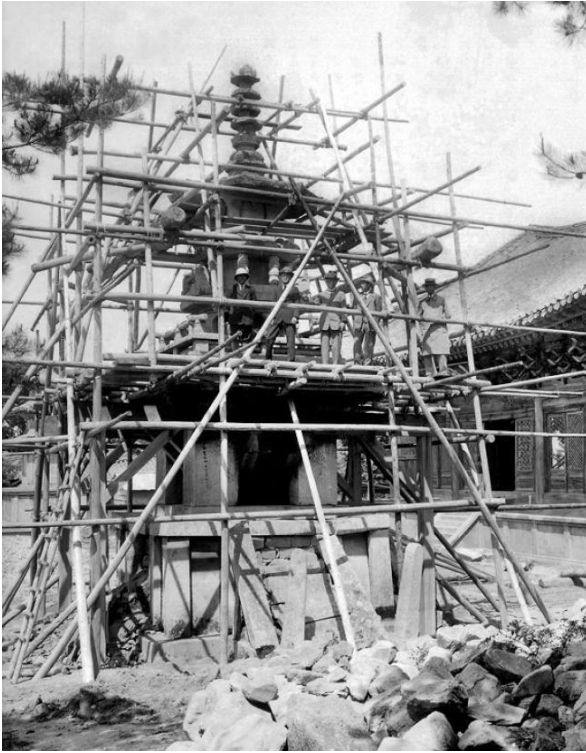
2.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의 보수 공사

13세기 일연이 저술한 『三國遺事』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0년(751)에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하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었다.³⁾ 그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두 개의 석탑은 김대성이 751년경에 사찰을 창건할 당시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07년 삼층석탑 사리공에서 출토된 목서지편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되기 전까지, 이 두 석탑은 창건기 이후 거의 보수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불국사 경내의 두 석탑은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쌍탑식 가람배치이지만, 두 석탑의 형태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사찰에서는 삼층석탑을 釋迦塔으로 부르고, 반대쪽의 異形石塔을 多寶塔이라고 부른다. 현재 다보탑은 국보 제 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삼층석탑은 국보 제 21호로 지정되어 있다.⁴⁾ 이 두 석탑에 대한 근대기 이후의 관심은 일제강점기에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한 보수공사와 함께 본격화되었다. 특히 일본 학자들은 두 탑 중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삼층석탑

3) 『三國遺事』 권5, 孝善 제9 「大城孝二世父母」, “乃爲現生二親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 … 寺中有記云 景德王代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4) 사찰에서 통용되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명칭은 『法華經』 「見寶塔品」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창건기의 명칭이 석가탑과 다보탑이었던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국보 지정명칭을 따라서, 각각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으로 지칭한다. 두 석탑의 유래에 대해서는 鄭永鎬, 1997, 「多寶塔·釋迦塔과 舍利塔」,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8, 117~118쪽 참조. 통일신라시대 쌍탑식 가람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는 김상태·박언근, 2003,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 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4, 7~26쪽 및 신용철, 2010, 「통일신라 경주지역의 불탑 배치에 관한 고찰」, 『미술사논단』 31, 7~28쪽 참조.



〈도 1〉 다보탑의 보수공사. 유리원판 사진. 1925년 촬영.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보다는 다보탑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는 일본에 다수 현전하는 다보탑의 형식적 원류가 불국사 다보탑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5년 1월 일본 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는 다보탑이 곧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수리해야한다고 조선총독부에 건의하여 그해 5월에 탑을 수리하게 되었다.⁵⁾ 아쉽게도 당시 다보탑의 수리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남아 있는 사진이나 문서가 극히 드물다.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리 원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비계를 설치하고

5) 일제강점기의 다보탑 수리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6쪽 참조.



〈도 2〉 다보탑 출토 불상. 유리원판 사진. 일제강점기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탑을 해체했던 것으로 보인다(도 1). 다보탑의 해체 보수공사는 전면 해체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설계 도면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당시 탑 안에서는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일본인들에 의해서 반출되었다고 전하는데, 아쉽게도 석탑의 어느 곳에 어떤 유물이 봉안되어 있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⁶⁾ 다만, 당시 『時代日報』의 기사를 통해서, 1925년 5월 29일 밤 9시경 다보탑을 수리하던 도중에 탑의 북쪽에서 높이 약 1촌 3분과 3촌 7분 정도 되는 금색이 찬연한 불상 2점을 발굴했었음이 확인되며,⁷⁾ 당시 촬영

된 불상의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도 2). 사진에 의하면 작은 상은 불상이 아니라 보살상이며, 큰 상은 통일신라시대의 佛立像인데, 이 두 점은 현재 행방불명상태이다. 사실에는 이 불상 2점이 당시 경주박물관으로 인계되었다고 하지만,⁸⁾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는 불국사 다보탑에서 출토된 불상으로 전하는 유물이 없다.

다보탑 출토 불상의 행방불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으로는 1925년 6월 9일 당시 불국사 보수공사를 담당하던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技手였던 武内保治가 경주 군수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보탑 발견 불상 2점을 경복궁내 종교분과실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있다.⁹⁾ 이 공문의 원문은 필자

6) 당시 다보탑 내에서 많은 보물이 나왔다는 목격담에 대해서는 정영호, 1997, 앞의 논문, 118쪽 참조.

7) 「金光이 燦爛한 二千年前佛像」, 『時代日報』 1925.06.06.

8) 정규홍, 2007,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18쪽.

9) 黃壽永, 1976, 「佛國寺의 創建과 그 沿革」,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文化公報

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 이 공문대로 다보탑에서 나온 불상 2점이 서울로 보내졌다면 경주박물관에는 아예 보관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편, 다보탑이 발굴되었던 일제강점기 당시 경주박물관의 심각한 유물 관리 문제도 다보탑 출토 불상의 행방불명과 관련이 있다. 1915년 조선고적연구회의 전시실에서 시작한 경주박물관은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경주 분관이 되어 본격적인 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다보탑이 발굴되었던 1925년에는 유물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특히, 당시 경주박물관의 초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1954)는 경주 지역의 문화재를 사사로이 도굴하고 장물로 팔았으며, 진품에 대한 모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데에도 앞장섰던 악명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1933년 5월 경주지역의 고분 도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거되었다.¹⁰⁾ 당시 경주박물관의 관장으로서 모로가 히데오가 빼돌린 경주 지역의 문화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1921년 발굴된 금관총 출토 유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물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은 확실하다.¹¹⁾ 그러므로 1925년 다보탑에서 발견된 불상이 1926년 이후 서울에서 다시 경주박물관으로 돌아왔더라도, 모로가와 그 일당들에 의해서 빼돌려져 불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일제강점기 경주 지역의 문화재 보존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유물들을 박물관으로 모아 들여서 밀반출하거나 복제품을 만들어 팔았던 일본인 관장 모로가를 비롯한 일본인 관리자들의 당당한 문화재 찬탈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모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10-1930년대 초반까지 경주 지역에서 일본인 관리자들이 문화재 불법 반출과 역사 왜곡을 주도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야할 과제이다.

1925년의 다보탑 해체보수공사는 보수과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출토유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部 文化財管理局, 37쪽, 각주 15 참조.

10) 『新羅 때 珍品을 盜賣一玉虫帳도 不知去處』, 『동아일보』 1933.05.03.

11) 1910년대부터 1933년 검거될때까지의 모로가 히데오의 문화재 약탈 활동과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 정치가 및 학자들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대구사학』 95, 1~39쪽 참조.

이 공사는 공개적인 도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모로가와 친분이 있던 일본 동경대 건축과 교수이자 대표적인 일제의 관변식민주의학자였던 세키노가 다보탑의 도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들어서 공사 시행을 적극 주장했던 것으로 볼 때, 당시의 다보탑 보수 공사는 탑 자체의 보수가 목적이 아니라, 탑의 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물들의 불법적 취득과 횡령 및 다보탑의 역사 훼손과 왜곡을 위한 일제 관변식민주의학자들의 역사 왜곡 및 전통 문화 파괴 활동이었다.

모로가가 장물로 빼돌린 경주 지역의 문화재의 상당수는 대구에서 활동하던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의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알려져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현재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오구라 컬렉션 중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들과 상당히 유사한 양식의 사리장엄구 일괄품이 전 남산 출토품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리장엄구 중 일부는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의 銀製卵形容器들과 제작기법 및 양식이 상통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이 다보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일 가능성이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¹²⁾ 현재 오구라 컬렉션 소장 전 남산출토 사리장엄구는 은제 사리기 3점, 금동제 사리합 1점, 동제합 1점, 금동제 경갑 1점 등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대구 전시를 위해 촬영된 유리원판 중에는 그중에서 금동합 1점, 은제 사리기 2점 및 금속제 小形 長頸瓶 1점이 일괄품으로 나오는데(도 3), 이 금속제 장경병은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그 외에 오구라 컬렉션 소장 사리기 중에 있는 작은 은제호(도 4) 한 점은 형태가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은제호(도 16)와 상당히 유사하여 주목된다. 향후 오구라 컬렉션 소장 사리장엄구의 출처 문제에 대해서는 모로가와 오구라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면서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12) 오구라 컬렉션 소장 전 남산출토 사리장엄구와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중 은제 난형용기가 제작기법 및 양식상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쌍탑의 사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주경미, 2003, 「통일신라시대의 金工技法 研究 - 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4, 293~294쪽 참조. 이후 이 견해는 2007년 목서지편의 공개와 함께 한정호에 의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정호, 2008,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小倉 컬렉션 傳 경주 남산출토 사리장엄구」, 『미술사논단』 27, 39~65쪽.



〈도 3〉 대구신라예술전 금동제 삼층탑문사리함 등. 유리원판 사진.
1929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는 우선 1966년에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 식민주의학자들의 주도로 다보탑이 전면해체된 것과는 달리, 불국사 삼층석탑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보수되지 않았다. 1920년대 불국사의 보수공사 과정에서, 삼층석탑은 석탑 주위에 배치된 8개의 팔방금강좌의 수리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불국사 삼층석탑 내에 봉안된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광복 이후인 1966년이다.



〈도 4〉 은제호. 전 남산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통일신라.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 소장.

3.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발굴 경위와 연구 현황

1966년 9월 경상북도 일대에서 석탑을 도굴하던 도굴꾼 일당이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의 도굴을 시도하면서, 삼층석탑의 탑신이 훼손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해 10월부터 훼손된 삼층석탑을 보수하기 위하여 해체 공사를 시작하였다. 10월 13일 삼층석탑의 2층 탑신석

상면 중앙에 마련된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도굴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사리장엄구 일괄품과 사리 48과가 발견되었다(도 5).¹³⁾ 당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꺼내어져 불국사에서 보관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3일 당시 불국사 주지의 실수로 유리제 사리병이 파손되면서 그 안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 2과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1966년 12월 23일 사리장엄구 일괄품 중 남은 사리 46과가 탑 안에서 출토된 사리기 일부 및 새로 제작한 사리장엄구들과 함께 탑 안에 다시 봉안되었다. 아쉽게도 당시 재봉안 의례는 사찰에서 승려들을 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봉안이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¹⁴⁾ 11월에 발생한 사리병의 파손 사건이 1967년 1월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불국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리장엄구 일체는 1967년 1월 11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7월 24일에는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1967년 9월 19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국보 제 12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한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였다.¹⁵⁾

사리장엄구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과 출토품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간단한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나, 무구정경과 사리기 이외의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품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이홍직의 논문을 통해서였으며,¹⁶⁾ 1966년 삼층석탑 사리공 발굴에 참여했던 진홍섭, 정영호, 윤무병 등이 당시 상황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¹⁷⁾

13) 1960년대 불국사 삼층석탑의 도굴 및 해체보수 과정에 대해서는 정영호, 2009, 「佛國寺 三層石塔의 毀損과 調査」, 『불국사 석가탑 유물 1 - 경진』, 국립중앙박물관, 52~73쪽 참조.

14) 정영호, 2009, 앞의 논문, 72~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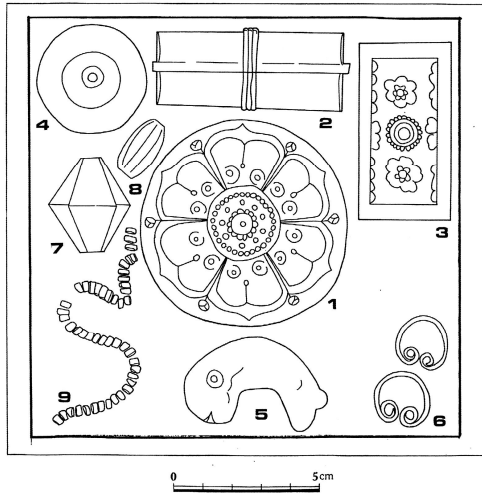
15) 당시 국보로 지정된 것은 28건이었으며, 기타 참고유물도 함께 국립박물관에 기탁되었다. 이난영, 2009, 「불국사 석가탑 舍利莊嚴具를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하고 관리한 경위」, 『불국사 석가탑 유물 1 - 경진』, 국립중앙박물관, 74~83쪽.

16) 李弘植, 1968,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 167~198쪽.

17) 鄭永鎬·秦弘燮·黃壽永, 1997,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尹武炳, 2001, 「佛國寺 釋迦塔 舍利藏置에 대한 研究」, 『學



〈도 5〉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 안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뚜껑을 개봉한 발굴 당시 상태. 1966년 10월 촬영. 불국사박물관 소장.



〈도 6〉 금동제 방형사리함 내부의 유물 배치도.
 1: 은제 사리기. 2: 무구정경. 3: 금동제 장방형사리함. 4: 은제 사리호. 5: 곡옥. 6: 청동제 고리. 7: 수정제 다면옥. 8, 9: 유리구슬. 도면출처 : 윤무병, 2001, 266쪽, 도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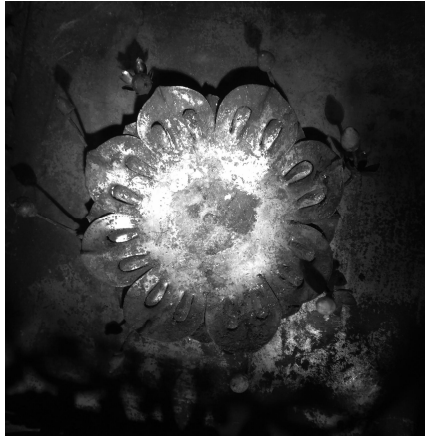
당시 발굴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방형의 사리공은 석탑의 2층 탑신석 상면 중앙에 마련되어 있었으며, 사방 41x41cm, 깊이 19cm로 비교적 큰 크기였다. 사리공 내부 바닥에는 비단을 깔고 한 가운데에 금동제 방형사리함을 봉안한 후(도 5, 7), 그 주변에는 銅鏡과 銅製 飛天像, 木造小塔, 그리고 각종 장신구 등의 공양구들을 봉안했다. 사리함 주변에 봉안되었던 여러 가지 공양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는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¹⁸⁾ 당시 봉안 상태를 보면, 무구정경은 금동제 방형사리함 내부에서 은제 사리합 및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었으며(도 6), 고려시대의 묵서지편과 보험인경은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바깥쪽 바닥에 놓여 있었다.



〈도 7〉 금동제 방형사리함.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 출토.
통일신라 8세기. 불국사박물관 소장.

18) 국립중앙박물관, 2009c, 앞의 책 ; 2009d, 앞의 책.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내부 중앙에는 금동관으로 만든 8엽의 연화좌가 자리하고 있는데, 연화좌의 주위에는 유리로 만든 작은 연꽃 봉오리 형태의 장식 8개가 돌아가며 장식되어 있다(도 8). 연화좌 위에는 2중의 은제 사리기와 초록색 유리병이 서로 겹쳐진 상태로 봉안되어 있었다(도 6, 12). 한 가운데에 봉안된 작은 유리병 안에는 원래 46과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었고 병 입구에는 주황색의 직물이 마개처럼 끼워져 있었다.¹⁹⁾



〈도 8〉 금동제 방형사리함(도 7)의 내부 연화좌. 통일신라 8세기. 불국사박물관 소장.

은제 사리기 주위에는 백지에 인쇄된 무구정경과 금동제 장방형사리함, 작은 은제 사리호, 곡옥, 수정 및 각종 구슬, 각종 향목 및 청동제 고리 2개 등이 발견되었다(도 5, 6). 금동제 장방형사리함 안에는 사리 1과가 봉안된 朱漆을 한 목제 사리병 1점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은제 사리호 안에는 금관으로 감싼 은제 원형사리함 1점이 봉안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다시 사리 1과가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丁香 나무의 껍질과 沈香 조각 등 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향목은 형겼으로 만든 주머니 안에 넣어져 있거나, 혹은 종이를 싸여져 있었다. 두 개의 작은 청동제 고리는 침향 조각 아래에서 발견되었다.²⁰⁾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바깥쪽 공간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銅鏡 2점, 청동제 비천상, 수정제 구슬 및 유리구슬, 동제 비녀 및 향목편, 맥, 목조소탑 및 다수의 직물편과 묵서지편 등이다.²¹⁾ 이 유물들은 대부분 사리를 위해서 바쳐진 공양품들로 추정된다.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바깥쪽 공간에서 발

19) 윤무병, 2001, 앞의 논문, 240~241쪽. 여기에서 발견된 사리 중 2과가 유리병이 깨지면서 분실되어 탑안에 다시 봉안된 것은 44과이다.

20) 윤무병, 2001, 앞의 논문, 248~252쪽.

21) 이 유물들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2009c, 앞의 책 참조.

견된 유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개되기 시작한 고려시대의 목서지편이다. 2005년 언론에서 이 목서지편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부가 판독되기 시작했으며,²²⁾ 이중에 고려시대에 유행한 『寶篋印經』의 필사본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²³⁾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07년 10월 처음으로 목서지편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하여,²⁴⁾ 목서지편의 전체 내용 판독 및 초벌번역을 시도했다. 이때 목서지편의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면 공개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7년부터 낱장 분리 및 보존처리가 시작된 목서지편 중에서 보협인경을 제외한 문서는 모두 110점으로, 한 장의 크기는 대략 가로 10cm, 세로 13-15cm 내외이다. 처음에 이 문서들은 크게 ①〈靖宗 4년 佛國寺塔重修布施名公衆僧小名記, 이하 ‘소명기’로 약칭〉, ②〈顯宗 15년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 및 〈현종 15년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形止記〉(이하 ‘무구정광탑중수기’로 약칭), ③〈정종 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④〈정종 4년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이하 ③④번을 합쳐서 ‘석기탑중수기’로 약칭) 등 네 종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되었다.²⁵⁾ 그러나 2008년 1월 최연식에 의해서 문서 복원이 재논의되었으며,²⁶⁾ 당시의 논의를 고려하여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문서들이 ①〈무구정광탑중수기〉, ②〈서

22) 安承俊, 2007,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초보적 검토-解讀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9, 319~339쪽.

23) 보협인경은 『一切如來心秘密全身寶篋印陀羅尼經(T1022, 19:710-712)』의 줄임말로, 인도출신의 승려 不空(705~774)이 8세기 후반에 번역한 경전이다. 중국에서는 10세기 吳越國의 錢弘俶王이 이 경전에 의거하여 팔만사천탑을 만들고 유포하면서 유명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전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월국 시대의 보협인경과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경미, 2018, 「吳越國과 韓半島의 佛敎文化 交流 新論」, 『역사와 경계』 106, 217~227쪽 참조.

24)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7, 『석기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25) 노명호·이승재, 2007, 「高處 顯宗·靖宗代 釋迦塔 重修 기록의 판독·역주」, 『석기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1~46쪽.

26) 최연식, 2008a,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불국사 석기탑 출토 “목서지편”과 사리장엄』, 2008년 한국목간학회 제1회 정기발표회, 1~28쪽; 최연식, 2008b,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105, 1~35쪽 참조.

석탑중수기》, ③〈소명기〉 등 3종의 중수문서와 보협인경 필사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⁷⁾ 이 중에서 〈무구정광탑중수기〉는 고려 현종 15년인 1024년에 탑을 중수하면서 필사된 것이며, 〈서석탑중수기〉와 〈소명기〉는 고려 정종 4년인 1038년에 탑을 중수하면서 필사된 것이다. 이 중에서 〈서석탑중수기〉에 의하면 이 탑은 대성각간, 즉 김대성이 경덕왕이 즉위한 天寶 원년인 742년에 개창했다고 하여,²⁸⁾ 불국사의 창건이 『삼국유사』의 기록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11세기 전반에 씌여진 석탑 보수와 사리장엄구의 봉안 과정에 대한 목서지편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목서지편의 상관관계 및 불국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다. 이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논란은 1024년의 〈무구정광탑중수기〉와 1038년의 〈서석탑중수기〉의 상관관계이다. 14년 차이로 기록된 두 중수기에서 탑의 명칭을 서로 다르게 썼기 때문에, 〈무구정광탑중수기〉에 나오는 무구정광탑은 석가탑이 아니라 다보탑이라는 학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중수기에 씌여진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²⁹⁾ 그러나 무구정광탑이란 명칭은 무구정경을 봉안한 탑을 지칭하는 것이며, 서석탑이라는 것은 탑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문서에 나오는 탑의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두 탑을 서로 다른 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보탑의 사리장엄구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되어 현재 소장처가 불확실하며, 아직까지 다보탑의 사리공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³⁰⁾ 〈무구정광탑중수기〉와 다보탑의 상

27) 국립중앙박물관, 2009b, 앞의 책 참조.

28)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第一相公大城角干亦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開闢 …” 국립중앙박물관, 2009b, 앞의 책, 66~67쪽 참조.

29) 현재 불국사의 쌍탑 중에서 삼층석탑은 서탑이며, 다보탑은 동탑에 해당한다. 두 중수기와 사리장엄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한정호, 2008, 앞의 논문; 周旻美, 2009a, 「〈墨書紙片〉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84~124쪽; 김연수, 2009, 「석가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 고찰」, 『불국사 석가탑 유물 3-사리기·공양품』, 국립중앙박물관, 162~183쪽.

30)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다보탑의 도면에는 사리공의 위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다보탑은 200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상륜부를 비롯한 일부를 해체 보수했으나, 당시 공사에서도 사리공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2009년 묵서지편과 출토유물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완간된 이후,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보고서 간행 이전인 2008년 묵서지편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품과 묵서지편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그 내용을 2009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³¹⁾ 당시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사보고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사리장엄구의 이관 이후,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2010

년에 특별전을 열어서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들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³²⁾ 2018년 불국사박물관이 개관하여, 현재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모두 불국사로 되돌아왔다.³³⁾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9년 불국사 다보탑의 상륜부와 2층 중간부 및 하부를 해체 수리했으며,³⁴⁾ 2012~2013년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을 전면해체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다보탑의 해체는 탑의 윗 부분만 해체했기 때문에, 사리공의 위치 및 봉안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삼층석탑의 수리 과정에서는 1966년에 재봉안되었던 사리 46과와 23건 40점의 사리장엄구들이 다시 발견되어 모두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7월 17일에는 석탑 상층기단부에서 높이



〈도 9〉 청동불상.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2011, 앞의 책 참조.

- 31)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불국사 삼층석탑 묵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 32) 佛敎中央博物館, 2010,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불교중앙박물관·불국사.
- 33) 불국사박물관의 개관 도록은 불국사박물관 편, 2018, 『불국사박물관 개관전 - 불국사』, 불국사박물관 참조.
- 3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책 참조.

4.5cm의 소형 청동불상 1점이 새로 출토되기도 했다(도 9).³⁵⁾ 삼층석탑 기단부에서 발견된 소형의 청동불상은 다보탑 하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라진 불상 2점의 예와 유사한 방식으로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소형 불상의 탑내 매납 의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2009년 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다보탑과 불국사 삼층석탑이 연이어 보수공사되면서, 한동안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이 없었다. 그에 비해 서지학과 사학계에서는 중수문서의 내용과 고려시대 불교 및 불국사에 대한 연구 및 무구정경과 보협인경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³⁶⁾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불국사와 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현존하는 주요 유물을 중심으로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 보겠다.

4.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양식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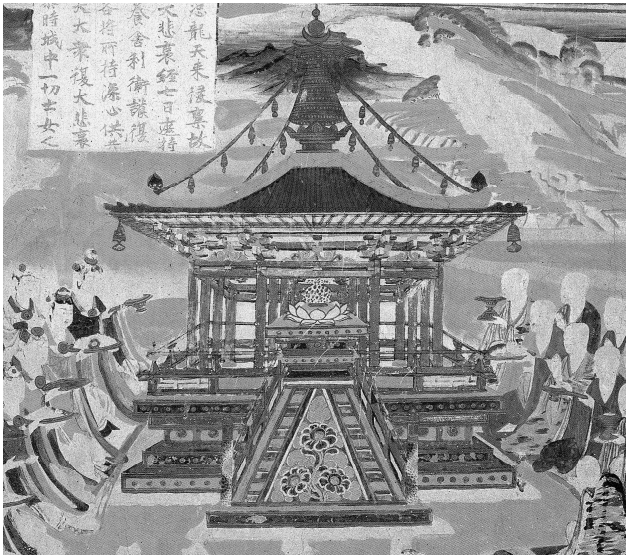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중심은 사리공 한 가운데에 봉안되어 있었던 금동제 방형사리함이다(도 7). 이 사리함 안에는 다시 3세트의 사리기들이 봉안되어 있었고, 모두 48과의 身舍利가 봉안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사리함 안에서는 무구정경의 목판인쇄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法舍利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사리함의 바깥 쪽에서는 무구정경의 범사리장엄의례와 관련된 목조소탑들과 각종 비단 및 공양품들이 부식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리장엄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신사리를 봉

3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a, 앞의 책 및 2017b,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보고서 II』, 국립문화재연구소, 192~232쪽 참조.

36) 리송재, 2010, 「불국사 석기탑 발견 〈寶篋印陀羅尼經〉 寫經의 書風」, 『서지학보』 36, 317~347쪽; 최연식, 2012,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불교학보』 61, 239~266쪽; 천혜봉, 2013, 『신라 간행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고려 중수문서의 연구』, 범우; 강호선, 2016, 「고려 전기 “寺匠”의 존재 양태: 伯士의 사용과 소멸」, 『한국사상사학』 54, 113~145쪽.

안한 사리기와 법사리장엄구를 함께 봉안한 양상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목서지편에 의하면, 이 사리기들은 1038년에 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물은 그대로, 일부 유물은 새로 제작해서 봉안했다고 하는데, 신사리와 법사리를 함께 봉안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통일신라시대 창건기의 사리장엄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발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사리기의 구성 방식과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사리공의 중심이었던 금동제 방형사리함은 순도가 높은 구리판을 투각하여 문양을 장식한 후에 접합하여 만든 것으로, 전체 높이 18.5cm, 사방 17.1cm 크기이다(도 7). 眼象이 표현된 기단부 위에 문양이 투각된 방형의 몸체가 놓이고, 다시 그 위에 방추형의 뚜껑이 덮힌 구조이다. 이 사리장엄구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木塔이나 舍利殿과 같은 단층의 목조건물을 단순화시킨 형식으로서, 單層塔 형식의 塔形舍利莊嚴具에 해당한다.³⁷⁾



〈도 10〉 열반경변상도의 舍利殿.

중국 둔황 막고굴 148굴 벽화. 중국 당 8세기.

37) 답형사리장엄구의 개념과 발전에 대해서는 주경미, 2006, 「답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224~249쪽 참조.

중국 敦煌 莫高窟 제 148굴의 벽면에 그려진 涅槃經變相圖 중에는 석가모니 붓다의 사리를 봉안하고 舍利親見儀禮를 행하는 장면에서 방형의 목조건축물 형태로 표현된 舍利殿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도 10). 唐代에 그려진 이 벽화에 표현된 목조건축물의 표현은 당시 불교계에서 종종 행해지던 사리친견의례를 반영하여 실제로 사리를 봉안했던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7~8세기경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붓다의 사리를 직접 보면서 공양 의례를 거행하는 사리친견의례가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거행되었는데, 이러한 의례에서는 사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사리전이나 누각과 같은 공간 구조가 중요했다.

한국에서 사리친견의례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³⁸⁾ 불국사 삼층석탑의 방형사리함 형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舍利器 형식이 통일신라 초기에 제작된 감은사 동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초기에는 사리친견의례가 왕실의 후원 아래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682년 문무왕을 위해서 건립된 감은사 동서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방추형 뚜껑을 가진 방형사리함을 外函으로 사용하고, 독특한 帳幕을 친 樓閣 형태를 모방한 寶帳形舍利器를 內函으로 구성했다(도 11).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방형사리함의 형식은 감은사 사리기의 외함 형식을 따르면서도, 감은사 동서탑 출토 방추형 사리외함의 측면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과는 달리 문양을 투각하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점이 다르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방형사리함의 표면에 투각을 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은 감은사 사리기 중 내함인 보장형 사리기 형식의 내부 개방형 구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사리친견의례의 전통과 관련된 것이다.³⁹⁾ 즉, 불국사 삼층석탑의 방형사리함은 감은사 사리기의 내함과 외함의 구조와 개념을 융합하여 창안된

38)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흥왕 10년(549)에 양나라로부터 佛舍利를 맞이할 때에 왕이 직접 나가서 공양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 사리친견의례는 사리신앙의 전래 초기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사리전래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는 주경미, 2014a, 『新羅 舍利莊嚴方式的의 형성과 변천』, 『新羅文化』 43, 179~183쪽 참조.

39) 감은사 사리기 내함의 내부 개방형 구조와 사리친견의례에 대해서는 주경미, 2014a, 앞의 논문, 188~193쪽 참조.



〈도 11〉 감은사 동탑 출토 사리장엄구. 금동제 내함과 외함.
통일신라 682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새로운 형식의 사리장엄구로서, 8세기 중반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독창성을 잘 보여준다. 이 사리함 형식은 이후 전 남원출토 금동제 사리기,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출토 금동제 사리기 등으로 계승되면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대표적인 사리장엄구 양식이 되었다.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측면 사방에 투각된 문양은 좌우대칭성이 강한 보상당초문이다. 보상당초문의 안쪽에는 가느다란 음각선으로 줄기와 꽃의 세부 형태를 새겼으며, 점선조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각각 투각된 별도의 판으로 만들어진 네 면은 다시 별도의 ㄱ자형으로 접은 판재 사이에 끼워서 방형 상자 모양으로 조립했다. 방추형의 뚜껑도 금동판을 접어서 접합한 것으로, 모서리의 연결부분에는 별도의 금속판재를 덧붙여서 장식했다. 몸체와 뚜껑의 모서리 부분에 덧붙인 판재 위에는 꽃받침 모양의 작은 금속판과 못을 이용하여 군데 군데 구슬을 끼워 장식했다. 꽃 모양으로 장식된 구슬들은 뚜껑 부분에 36개, 몸체 부분에 16개로 모두 52개가 사용되었다.⁴⁰⁾ 구슬의 재질은 유리 및 각종 준보석류이다. 뚜껑의 처마 부분에는

40) 전효수·권윤미, 2009, 「금동제 사리기 제작기법」, 『불국사 석가탑 유물 4 - 보존처

心葉形의 영락을 규칙적으로 매달아 장식하여 매우 화려해 보인다. 이 금동제 방형사리함은 고려시대의 목서지편에서도 창건기의 유물로 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과 형식 등이 모두 불국사 삼층석탑의 창건 시기인 742년경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뛰어난 금속공예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 12〉 2종의 은제 사리기(고려시대)와 유리제 사리병(통일신라시대).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불국사박물관 소장.



〈도 13〉 유리제 사리병과 사리. 중국 陝西省 臨潼縣 慶山寺塔 地宮
출토. 唐 741년경. 중국 臨潼縣博物館 소장.

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 22~35쪽.

금동제 방형사리함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세 세트의 사리장엄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방형사리함 중앙에 마련된 연화좌 위에 봉안되어 있던 은제 사리기 세트이다(도 12). 사리함 내부 중앙에 연화좌를 마련하고 사리기를 안치하는 방식은 감은사나 송림사 등 통일신라 전기의 사리장엄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연화좌 위에 2중으로 포개어 안치한 2개의 은제 사리기는 계란 모양에 가까운 卵形盒 형식이며, 그 안에는 다시 사리 46과를 봉안했던 녹색의 유리제 사리병이 봉안되어 있었다. 은제 사리기 중 바깥쪽 합은 높이 10.8cm로서, 두께 1mm 내외의 얇은 은판을 두드려서 뚜껑과 몸체를 별도로 만들었다. 몸체 부분에는 표면에 커다란 원형의 꽃문양 4개를 돌아가며 장식했으며, 각 원형 꽃문양 안에는 다시 작은 꽃 한송이를 새기고 바탕은 魚子文技法으로 채워넣었다. 또한 원형 꽃문양 사이의 공간에는 꽃모양의 구슬을 하나씩 붙여서 장식했다. 은판을 단조 및 타출기법으로 제작한 뚜껑에는 6개의 꽃잎을 입체감있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는 꽃 한송이로 보이게 표현했고, 맨 위의 중앙에는 붉은색 구슬을 붙여 장식하였다. 안쪽의 은제 사리기는 높이 5.8cm에 구연부 지름 6cm의 크기로, 뚜껑 없이 몸체만 있는 그릇이다. 표면에는 6개의 꽃잎을 가진 커다랗고 화려한 꽃 한송이를 타출기법과 어자문기법으로 장식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자문기법은 정교함이 떨어지고 성글게 표현되어 있다.

고려시대 중수문서인 <서석탑중수기>에 의하면, 1038년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를 새로 봉안할 때에 승려 英漢이 銀鐘을 새로 만들고자 해서, 內鐘 1점, 外鐘 1점, 蓋具 1점을 만들었다고 한다.⁴¹⁾ 그러므로 이 두 점의 은제 사리기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고려 1038년의 중수 때에 새로 만들어 봉안된 고려시대의 사리기로 추정된다.⁴²⁾ 그러나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사리장엄구의 재봉안 과정에서 원래의 물건을 그대로 넣거나 복제해서 넣는 전통을 고려해본다면, 이 사리기의 형식 자체는 창건기인 통일신라시대 사리기의 형식을 모방해서 재현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⁴³⁾

41) 국립중앙박물관, 2009b, 위의 책, 77쪽.

42) 한정호, 2008, 앞의 논문 및 주경미, 2009a, 앞의 논문 참조.

43) 현재 불국사 삼층석탑 내부에는 1966년에 발굴된 사리장엄구를 복제하여 만든 사리장엄구 일괄품을 새로 봉안해 놓았는데, 이는 탑내 사리장엄구의 복제품 제작과 재

2층의 은제 사리기 안에 봉안된 녹색 유리제 사리병은 높이 6.5cm에 동체 최대 지름 5cm의 크기이다. 목이 길고 가늘며, 동체는 둥근 원형에 가까운 장경병 형식으로, 구연부는 약간 두껍게 외반되어 있다. 이 유리병은 741년경 봉안된 중국 陝西省 慶山寺 塔 地宮에서 출토된 유리제 사리병과 크기 및 형태, 재질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도 13),⁴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병은 발굴 당시에는 온전한 상태였으나, 이후 보관상의 실수로 인하여 깨졌다가 복원되어 금이 남아 있다. 사리병 안에는 원래 46과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유리병이 파손될 때에 2과가 사라져서 남아 있는 44과만 탑 안에 재봉안되었다. 이 사리들은 2013년 중수 때에 잠시 탑에서 꺼내어져서 친견의례를 거행한 후, 지금은 탑 안에 다시 봉안되었다.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동편에 봉안되어 있던 두 번째 사리장엄구 세트는 금동제 장방형사리함과 그 내부에서 발견된 목제 사리병으로 구성되어 있다(도 14, 15). 금동제 장방형사리함은 높이 6.9cm, 넓이 6.2cm, 폭 3.2cm의 소형함이다. 앞면과 뒷면에는 선조기법으로 삼층석탑과 좌우의 공양보살 2구를 표현해 놓았으며, 양쪽 측면에는 갑옷을 입은 천왕상을 1구씩 표현했다. 뚜껑 윗부분에는 꽃 문양을 표현했으며, 모든 면의 바탕에는 일렬로 정연하게 어자문을 가득 찍어서 여백을 메웠다. 사리함의 내면에는 辰砂를 이용하여 붉은 칠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리함의 내부에서 발견된 목제 사리병은 높이 5cm의 작은 장경병 형식으로 전면에 주칠을 했으며, 위에 도금한 마개가 꽂혀있고 내부에는 사리 1과를 봉안해 놓았다.

봉안 의례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사리장엄구의 재봉안 사례에서 原形의 모방과 再現 사례는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周昞美, 2009b,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美術史學』 23 : 2014b, 「模倣과 再現－南宋 皇室의 寧波 阿育王塔 供養과 그 影響」, 『中國史研究』 93 참조.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銀製卵形舍利器와 비교되는 8세기의 사리장엄구로는 711년 일본 나라 法隆寺塔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를 비롯하여 일본 나라 시대의 예가 있다. 주경미, 2011, 「韓日 古代 佛舍利莊嚴의 비교 연구」, 『불교미술사학』 12, 24~26쪽 및 28~29쪽.

- 44) 慶山寺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東京都美術館, 1998,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 東京都美術館 및 周昞美, 2004a, 「唐代 慶山寺 地宮 出土 佛舍利莊嚴의 新研究」, 『中國史研究』 29, 71~106쪽 참조.



〈도 14〉 금동제 장방형사리합.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도 15〉 목제 사리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이 목제 사리병의 진품은 1966년 탑 안에 재봉안했다가 2013년 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굴되어 현재 불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⁴⁵⁾ 이전 연구들에서는 이 사리기의 마개가 은제도금이라고 추정해왔는데, 최근 진품의 조사 결과 마개의 재질은 금동제임이 밝혀졌다.⁴⁶⁾ 한편, 발굴 당시에는 목제 사리병 좌우에 비취옥과 수정옥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는데,⁴⁷⁾ 비취옥과 수정옥은 재보로서 봉안한 공양구로 추정된다.

금동제 방형사리합의 서북쪽 모퉁이에 봉안되어 있던 세 번째 사리장엄구 세트는 소형의 은제 사리호와 은제 소형원형합, 얇은 金銅花形裝飾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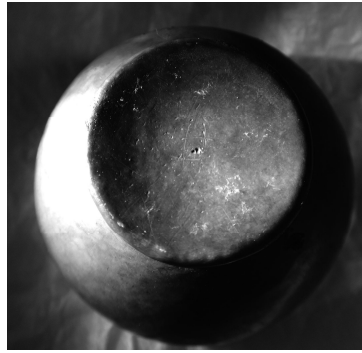
45) 2013년 재발굴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서적에 게재된 이 사리병의 모든 도판은 1966년에 제작된 모조품의 사진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모조품의 마개는 은색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제작된 모조품은 2013년 진품 대신 불국사 삼층석탑 안에 봉안되었다.

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앞의 책, 197~199쪽.

47) 秦弘燮, 1997, 『佛國寺三層石塔內 舍利莊嚴具』,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6~27쪽.



〈도 16〉 은제 사리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도 17〉 은제 사리호 바닥면 “井”자 명문
세부.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이 사리기 세트는 1966년 진품이 탑 안에 재봉안되고, 당시 제작한 복제품이 그동안 공개되어 있다가 2013년의 보수 공사 때에 다시 탑 안에서 출토되었다. 현재는 진품이 보존처리를 거쳐 불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966년에 제작된 복제품이 탑 안에 새로 봉안되었다.⁴⁸⁾ 은제 사리호는 전체 높이 4.1cm, 몸체 지름 3.7cm의 납작한 호 형식이다. 몸체는 한 장의 은판을 두드려서 굽과 동체, 목 부분을 형성한 것으로, 뛰어난 단조기법을 보여준다.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바닥면의 한 가운데에는 모조기법으로 “井”자와 비슷한 명문을 새겨 놓은 것이 최근 조사에서 새로 확인되었다(도 17). 한편, 은제 사리호 안에는 얇은 금박판과 원형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얇은 금박판으로 알려진 것은 금제가 아니라 동판에 도금한 금동체로 확인되었다.⁴⁹⁾ 형태는 4개의 꽃잎을 가진 화형장식판인데 구겨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안에 들어 있던 납작한 소형 원형합은 최대 지름 1cm의 작은 합으로, 작은 원형 은판을 타출하여 그릇의 몸체와 뚜껑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도 18). 이 은합과 은제 사리호는

48) 2013년 이전에 공개되어 있던 은제 사리호와 은제합 사진은 모두 복제품의 사진이다. 이 두 점의 사리기 진품은 2018년 11월 개관한 불국사박물관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다.

4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앞의 책, 199쪽.



〈도 18〉 金銅花形裝飾板과 은제소형원형합 및 쥘.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통일신라. 불국사박물관 소장.

모두 순은으로 제작되었으며, 상당히 뛰어난 단조 및 타출기법을 보여준다. 은합 안에는 사리 1과와 붉은 색의 樹脂形 쥘이 봉안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리는 탑 안에 다시 봉안되었다.

그 외에 금동제 방형사리함 안에서는 경전인 무구정경 1점과 여러 가지 향목들, 曲玉과 多面玉을 비롯한 각종 구슬류 및 직물류, 동제 고리 2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무구정경은 범사리로서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유물들은 모두 공양품으로 봉안된 것이다. 방형사리함 안에서 출토된 공양품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2점의 열매이다. 그중 1점은 檳榔이며, 다른 1점은 하리타키(haritaki)의 열매이다.⁵⁰⁾ 빈랑과 하리타키는 모두 인도 및 동남아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열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로 사용된다. 그중에서 하리타키는 訶子, 혹은 訶梨勒이라고 하는데, 〈무구정광탑중수기〉와 〈서석탑중수기〉에는 “下利勒”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金光明最勝王經』에 의하면, 이 열매는 6가지 맛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藥 중의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품으로 바쳐졌다고 한다.⁵¹⁾ 금동제 방형사리함 안에서 발견된 하리타키, 즉 하리락 열매는 11세기 고려시대 탑내 공양품으로 봉헌된 것이다. 이는 당시 한약재가 멀리 인도 및 동남아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한약재의 수입과 한의학이 불교 사찰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바깥쪽 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유리 구슬과 진주

50) 이용희, 2009, 「목제 소탑, 향목류 및 먹 보존처리」, 『불국사 석가탑 유물 4 - 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 62~63쪽.

51) “訶梨勒一種 具足有六味 能除一切病 無忌藥中王 …”. 『金光明最勝王經』 卷9, T665, 16:488b, 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번호, 권:쪽수의 약칭임. 주경미, 2009a, 앞의 논문, 90~91쪽에서 재인용.

구슬 1점, 거울, 비녀, 향목편 및 각종 한약재, 먹편, 직물과 목탑, 비단벌레의 날개 및 직물편 등 다양한 공양품이 발견되었다.⁵²⁾ 이러한 유물들 중 상당수는 고려시대 11세기에 탑을 중수하면서 새로 봉안한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에 재봉안된 유물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종 비단을 비롯한 직물류와 다양한 향과 한약재들이 있다.

고려시대의 <무구정광탑중수기>와 <서석탑중수기>에는 당시 탑을 해체 하면서 발굴된 유물의 목록과 탑 안에 사리장엄구를 재봉안하면서 봉안한 유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재봉안품의 목록에 보이지 않는 유물들이 현재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 안에서 확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과 현존하는 유물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석탑중수기>에 나오는 “前物不動”이라는 구절이다.⁵³⁾ 이는 “이전에 있던 물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앞 시대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들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들은 종종 탑 안에서 꺼내어져 친견의례를 행한 후 다시 탑 안에 재매납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앞 시대의 사리장엄구들은 별다른 기록 없기 그대로 재매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북위시대인 453년에 창건된 河北省 定州市 靜志寺의 탑이 창건 이후 隋代, 唐代, 宋代 977년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탑의 지궁을 열고 사리장엄구를 새로 봉안했던 각종 기록과 사리장엄구들이 발굴된 예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궁의 기록과 현존하는 사리장엄구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여러 시대의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들의 예가 혼재된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탑 안에 기록된 명문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그러므로 탑 안에서 발견된 명문 자료는 기록자의 시각과 당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

52) 사리공내 공양품의 구체적인 목록은 김연수, 2009, 앞의 논문, 173쪽의 표를 참조.

53) <서석탑중수기>. “舍利安藏爲白乎矣前物不動爲 ….” 국립중앙박물관, 2009b, 앞의 책, 77쪽.

54) 정지사탑 지궁의 중창과정과 출토품에 대해서는 주경미, 2009b, 앞의 논문 참조.

는데,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묵서지편의 기록과 현존하는 사리장엄구와의 관계도 기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두 종류의 경전을 중심으로, 신라와 고려시대 법사리장엄의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4.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법사리장엄의 변화

석가모니 붓다의 입멸 이후 그의 遺身에서 비롯된 身舍利 신앙은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교단 내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여, 점차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인 말씀과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나, 그것들의 要諦인 偈頌이나 다라니 등이 훨씬 우월하다는 경전 우위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탑 안에 신사리 대신 경전이나 계승, 다라니를 봉안하는 법사리장엄의례가 발전했다. 7세기 중국의 玄奘 스님이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귀국한 이후부터 동아시아에서는 求法僧들을 통해서 법사리장엄의례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法舍利보다는 眞身舍利에 대한 신앙이 황실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법사리장엄의례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8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법사리장엄의례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행한 것은 신라 왕실이었다.⁵⁵⁾

신라 왕실에서 법사리장엄의례를 본격적으로 거행하게 된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704년 중국에서 번역되어 신라로 전해진 무구정경(T1024, 19:717c-721b)이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카필라 성의 한 바라문에게 수명 연장과 도솔천에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쌓기 위한 造塔功德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탑을 세우기 위한 의례와 그 의례에 사용되는 6종류의 다라니가 언급되어 있다. 이 다라니들의 作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77회, 혹은 99회를 필사하여 각각 진흙 소탑에 넣은 후, 이 99개의 소탑으로 오래된 탑을 중수하거나 새 탑을 건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은 다라니의 필사와 다수의 공양소탑의 제작을 통해서

55) 불교의 여러 가지 사리신앙의 발전과 의미에 대해서는 주경미, 2017, 「불사리장엄구의 문화적 양가성」, 『진단학보』 129, 49~74쪽 참조.

탑을 장엄하는 법사리장엄 의례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인도에서 행해지던 향가루로 만든 소탑의 제작을 통한 법사리탑의 건립 의례와 상통하는 것이다.⁵⁶⁾

지금까지 알려진 무구정경의 법사리장엄의례와 관련된 가장 이른 동아시아의 현존례는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여 창건하고 중수한 경주 황복사지 석탑에서 확인되었다. 이 탑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동함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이 탑은 692년 신문왕을 위해서 효소왕과 신목태후가 처음 창건한 것으로, 706년에 성덕왕이 그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중수하면서 불사리 4매, 전금아미타상 1구, 무구정경 1권을 봉안했다고 한다.⁵⁷⁾ 아쉽게도 무구정경은 현재 사라진 상태지만, 명문이 새겨진 금동함 표면에 99개의 소탑을 點刻으로 새겨 놓아서 무구정경에 의거한 다라니작법을 거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9개의 소탑 조형은 무구정경의 내용을 따라서 옛탑을 중수하는 법사리장엄의례의 흔적이다. 황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704년에 번역된 무구정경이 곧바로 706년에 신라 왕실로 전래되었고, 신라 왕실에서는 새로 번역된 경전을 받아들여 그 경전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사리장엄의례를 창의적으로 거행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금동제 방형사리함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경은 바로 이러한 신라 왕실에서 창안한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엄의례의 결과물로 봉안된 것이다. 이 경전은 길이 641.9cm, 폭 6.65cm의 목판 인쇄본으로서, 비단에 싸고 여러번 실로 묶은 상태로 금동제 방형사리함 안에 놓여져 있었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창건이 742년으로 확인된 지금,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무구정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⁵⁸⁾ 지금까지 불국사의 창건은 김대성이 현세 부모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발원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불국사 삼층석탑

56) 무구정경의 내용과 다라니작법 및 통일신라시대 법사리장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周冥美, 2004b,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 165~196쪽 참조.

57) 황복사지 석탑의 발굴과 사리장엄구의 명문은 李弘植, 1954, 『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考』, 乙酉文化社, 37~59쪽 참조.

58) 불국사 무구정경에 대해서는 金聖洙, 2000,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및 천혜봉, 2013, 앞의 책 등을 참조. 아직까지 불국사 무구정경의 제작시기와 제작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異見이 있다.

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목서지편에 의하면, 탑의 창건시기는 신라 경덕왕의 즉위년인 742년에 해당한다. 이는 불국사 석탑의 창건이 단순히 김대성의 개인적 발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덕왕의 즉위와 관련된 국가적 사업으로 거행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⁵⁹⁾ 무구정경에는 亡子를 위한 공덕 뿐만 아니라, 무구정경의 다라니작법에 의해서 건립된 탑이 있는 곳은 하늘나라의 善神들이 그 나라를 수호할 것이라는 護國의 공덕도 설해져 있다.⁶⁰⁾ 그러므로 불국사 석탑의 창건은 경덕왕 즉위연간이라는 국가적 변혁기와 관련하여, 新王을 위한 호국적 목적에서 행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왕실에서 의해서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엄이 행해진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대부분 99개의 소탑과 다라니 필사본, 혹은 무구정경 전체를 신사리 장엄구와 함께 탑 안에 봉안했다. 불국사 삼층석탑에서도 무구정경의 다라니작법에 의한 목조소탑 편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다. 금동제 방형사리함 내에 경전과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목조소탑은 1기 뿐이었지만, 그 바깥쪽 사리공 부분에서 13기, 노반 찰주공부분에서 4기가 발견되어, 모두 18기의 목조소탑이 발견되었다.⁶¹⁾ 고려시대의 목서지편에서도 목조소탑의 매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목조소탑들은 창건기와 고려시대에 추가된 것들이 혼재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중 노반부에서 목조의 공양소탑이 출토된 것은 무구정경의 相輪櫟中陀羅尼法이나 大功德聚陀羅尼法에 의한 장엄방식의 흔적으로 주목된다.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엄과 공양소탑의 제작 의례가 8세기 전반 통일신라 왕실에서 시작한 독특한 법사리신앙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무구정경과 목조소탑은 석가탑이 창건된 742년경에 제작되어 봉안되었던 유물이자 통일신라에서 사체적으로 제작하여 봉안한 사리장엄의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⁶²⁾

59) 불국사의 창건 배경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李萬, 1997,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8, 7~29쪽 및 金南允, 1997,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8, 31~49쪽 참조.

60) T1024, 19:718c-719a. 주경미, 2004b, 앞의 논문, 178쪽에서 재인용.

61) 秦弘燮, 1997, 「佛國寺三層石塔內 舍利莊嚴具」,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2쪽. 한편, 현재 남아있는 목조소탑은 모두 19기이다. 불국사박물관 편, 2018, 앞의 책, 79쪽.

고려시대 중수문서인 <서석탑중수기>에 의하면, 大德 崇英이 보협인경을 바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구정경 1권의 명칭이 나오므로,⁶²⁾ 한동안 현존하는 무구정경을 대덕 송영이 1038년에 새로 봉안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송영의 봉안품 주변 글자들 상당수가 너무 많이 탈락되었으며, 현존하는 경전의 물질적 특성으로 볼 때 고려시대의 유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경전을 송영의 봉안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무구정경은 인쇄한 종이의 재질이나 서체 등의 특징으로 볼 때, 불국사 삼층석탑 창건기의 유물이 그대로 재봉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⁴⁾ 다만 경전을 포장했던 직물류는 고려시대에 새로 만들어서 봉안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창건기 무구정경의 탑내 봉안위치는 지금과 같이 사리함의 내부가 아니라 사리함 바깥쪽에 별도로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공 안에서 고려시대의 중수문서와 보협인경은 무구정경과는 달리 금동제 방형사리함의 바깥쪽 바닥 부분에 따로 봉안되어 있었다. 이러한 봉안위치의 차이는 아마도 “전물부동”하는 과정에서 앞시대의 봉안품과 새로 봉안하는 공양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석탑중수기>에서 대덕 송영이 봉안한 것이라고 기록된 보협인경은 현재 백지묵서의 필사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이 재질이나 상태는 다른 묵서지편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경전은 현재 훼손이 심해서 경전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편만 남아 있다.⁶⁵⁾

11세기에 불국사 삼층석탑을 보수하면서, 법사리장엄을 위한 새로운 경

62) 현존하는 唐代 무구정경 관련 유물은 經幢과 塔銘으로만 남아 있고, 사리장엄구의 예는 없다. 문헌에서는 唐 玄宗 연간에 無垢淨塔이 세웠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당시 무구정경의 성격은 확실하지 않다. 무구정경의 판본이나 다라니, 공양소탑 99기를 탑 안에 봉안했던 당나라의 실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63) 국립중앙박물관, 2009b, 앞의 책, 79쪽.

64) 무구정경의 지질이나 보존상태는 고려시대 중수문서 및 보협인경과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통일신라시대 사경들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지선, 1998, 「古代 종이 遺物의 保存修復」, 『서지학연구』 15, 135~158쪽 참조.

65)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보협인경의 현황에 대해서는 박상국, 2009, 「묵서지편에서 나온 寶篋印陀羅尼經 寫經片」,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전』, 국립중앙박물관, 116~121쪽 참조.

전인 보협인경을 추가적으로 봉안한 것은 고려시대 불교계의 변화를 보여 준다. 통일신라시대 왕실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무구정경에 의한 99개의 탑과 다라니 필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사리장엄의례는 신라 왕실 발원 및 관련 사찰에서 널리 행해졌다. 8세기에 창건된 불국사의 삼층석탑이나 9세기에 중수된 황룡사의 구층목탑 등에 행해졌던 무구정경에 의한 법사리장엄구들은 11세기에 이 탑들이 중수되는 과정에서 고려를 비롯한 당시 불교계에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석탑중수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탑 안의 聖物로서, 혹은 성물을 위해서 봉안된 옛 물건들은 “전물부동”의 관습에 의거하여 폐기하지 않고 탑 속에 대부분 다시 재매납했다. 고려 불교계에서는 신라 왕실을 위한 옛 의례의 흔적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그 의례를 그대로 계승하지도 않았다. 고려 승려들은 새로운 법사리장엄을 위한 경전을 받아들여진 보협인경을 불국사 삼층석탑에 추가 봉안함으로써, 불국사 삼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는 종교적 보수성을 간직하는 동시에, 새롭게 고려적 양식으로 변화되어 중수를 완료했던 것이다. 1966년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법사리로서의 무구정경과 보협인경은 창건기인 통일신라시대와 11세기 고려시대의 중수기를 거치면서 변화 발전한 한국 특유의 법사리장엄의례의 흔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1966년 재봉안한 사리장엄구들은 발견 당시의 사리장엄구들을 그대로 모방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⁶⁶⁾ 물론, 중수기와 기타 봉헌물품의 구성은 다소 현대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옛 사리장엄구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탑 안에 봉안하는 것은 지금도 “前物不動”의 사리장엄구 봉안 의례 전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에 대해서 연구 현황과 양식적 특징 및 의의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8세기 전반 경

66) 1966년에 새로 제작된 사리장엄구들은 2013년 석탑의 보수공사 도중에 확인되었다가, 다시 탑 안에 재봉안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b, 앞의 책, 224~226쪽의 사진 참조.

덕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김대성이 창건한 불국사는 지금도 한국 불교계에서 매우 위상이 높고 중요한 사찰이다. 불국사의 두 석탑 중 다보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탑내 봉안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었지만, 다행히 불국사 삼층석탑에서는 1966년 거의 온전한 상태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그동안 숨겨져 있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들을 새롭게 알려주었다.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불국사의 오래된 역사와 불교문화의 단면을 세상에 알려준 중요한 역사적 聖寶들로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역사, 불교 문화 및 미술·공예 양식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중에서 사리장엄의 핵심이 되는 중앙의 금동제 방형사리함과 신사리를 봉안한 유리병, 그리고 법사리인 무구정경은 창건기인 통일신라시대 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국사의 석탑들은 고려시대 전기인 1024년과 1038년에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졌다가 보수되었다. 당시 석탑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리장엄구는 새 것으로 대체되고, 상당수의 공양품들이 추가로 봉안되었다. 사리공에서 발견되어 2009년 전면공개된 고려시대의 중수문서들은 고려 전기 불국사의 역사와 삼층석탑의 중수과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들로서, 향후 이 문서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존하는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의 실물이 목서지편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미리 준비한 기록물과 실제 의례 과정에서 봉안되는 유물들과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이거나, 혹은 “前物不動” 및 “聖物の 복제와 재현” 전통이라는 동아시아 불교계 특유의 문화적 전통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고려시대에 새로 제작하여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2중의 은제 사리기와 제작기법 및 양식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의 오구라 컬렉션 소장의 전 남산출토 사리장엄구 일괄품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들은 오랜 기간 탑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작기법과 양식으로 사리장엄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체로 쌍탑에서만 확인되거나, 탑이 보수되면서 함께 수리될 때 뿐이다. 그러므로 불

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와 양식적으로도, 제작기법적 측면으로도 상당히 유사성을 지닌 전 경주 남산 출토로 알려진 오구라 컬렉션 소장 사리장엄구가 일체강점기인 1925년에 밀반출된 불국사 삼층석탑의 쌍탑인 다보탑의 사리장엄구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할 과제이다.

2018년 11월 불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품은 발굴된 지 반세기 만에 다시 불국사로 반환되었다. 국보이자 한국 불교의 중요한 聖寶인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들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실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불국사와 불국사박물관의 역할과 지원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⁶⁷⁾ 불국사박물관의 개관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이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동안 잊혀져왔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역사와 불교 문화의 국제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⁶⁸⁾

주제어 : 佛國寺, 釋迦塔, 多寶塔, 舍利莊嚴具,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法舍利

논문투고일 : 2018. 09. 30

논문심사시작일 : 2018. 10. 12

논문게재확정일 : 2018. 11. 01

67) 이 자리를 빌어 본고의 작성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불국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68) 2018년 11월 14일 일본 나라박물관에서는 葛城市 當麻寺의 西塔 刹柱 안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장엄구를 공개했는데, 이중에서 銀壺의 형태가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은제 사리호(본고 도 16)와 상당히 유사함을 附記해놓는다. 「最古級の金銀銅の舍利容器を發見」, *NHK NEWS WEB*, 2018.11.14. 이러한 은호의 형태는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8-9세기 사리장엄구에서 종종 확인되는 것으로, 일본과 통일신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金光明最勝王經』, 『無垢淨光大陀羅尼經』, 『法華經』, 『三國遺事』
『一切如來心秘密全身寶篋印陀羅尼經』

2. 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_____, 2017a,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I』,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7b,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보고서 II』,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7, 『석가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2009a,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진』, 씨티파트너.
_____, 2009b, 『불국사 석가탑 유물 2-중수문서』, 씨티파트너.
_____, 2009c, 『불국사 석가탑 유물 3-사리기·공양품』, 씨티파트너.
_____, 2009d, 『불국사 석가탑 유물 4-보존처리·분석』, 씨티파트너.
- 金聖洙, 2000,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佛敎中央博物館, 2010,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불교중앙박물관·불국사.
불국사박물관 편, 2018, 『불국사박물관 개관전 - 불국사』, 불국사박물관.
- 정규홍, 2007,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 鄭永鎬·秦弘燮·黃壽永, 1997,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천혜봉, 2013, 『신라 간행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고려 중수문서의 연구』, 범우.
東京都美術館, 1998, 『唐の女帝・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 東京都美術館.

3. 논문

『金光이 燦爛한 二千年前佛像』, 『時代日報』 1925.06.06.

- 「新羅 때 珍品을 盜賣 - 玉虫帳도 不知去處」, 『동아일보』 1933.05.03.
- 「最古級の金銀銅の舍利容器を發見」, NHK NEWS WEB, 2018.11.14.
- 강호선, 2016, 「고려전기 “寺匠”의 존재 양태: 伯士의 사용과 소멸」, 『한국사상사학』 54.
- 金南允, 1997, 「佛國寺의 創建과 그 位相」,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論文集 18.
- 김상태·박언곤, 2003, 「7·8세기 동아시아 2탑식 가람의 생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2-4.
- 김연수, 2009, 「석가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 고찰」, 『불국사 석가탑 유물 3-사리기·공양품』, 국립중앙박물관.
- 노명호·이승재, 2007, 「高慮 顯宗·靖宗代 釋迦塔 重修 기록의 관독·역주」, 『석가탑 발견 유물 조사 중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
- 리승재, 2010, 「불국사 석가탑 발견 〈寶篋印陀羅尼經〉 寫經의 書風」, 『서지학보』 36.
- 박상국, 2009, 「묵서지편에서 나온 寶篋印陀羅尼經 寫經片」,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전』, 국립중앙박물관.
- 박지선, 1998, 「古代 종이 遺物の 保存修復」, 『서지학연구』 15.
- 신용철, 2010, 「통일신라 경주지역의 불탑 배치에 관한 고찰」, 『미술사논단』 31.
- 安承俊, 2007,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초보적 검토-解讀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9.
- 尹武柄, 2001, 「佛國寺 釋迦塔 舍利藏置에 대한 研究」, 『學術院論文集』 40.
- 이난영, 2009, 「불국사 석가탑舍利莊嚴具를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하고 관리한 경위」,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전』, 국립중앙박물관.
- 李萬, 1997, 「佛國寺 建立의 思想的 背景」,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 學術發表會論文集 18.
- 이용희, 2009, 「목제 소탑, 향목류 및 먹 보존처리」, 『불국사 석가탑 유물 4-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
- 李弘植, 1954, 「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考』, 乙酉文化社.
- _____, 1968, 「慶州 佛國寺 釋迦塔 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
- 전효수·권윤미, 2009, 「금속제 사리기 제작기법」, 『불국사 석가탑 유물 4-보존처리·분석』, 국립중앙박물관.
- 鄭永鎬, 1997, 「多寶塔·釋迦塔과 舍利塔」, 『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新羅文化祭學

- 術發表會論文集 18.
- _____, 2009, 「佛國寺 三層石塔의 毀損과 調査」, 『불국사 석가탑 유물 1-경전』, 국립중앙박물관.
-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慶州古蹟保存會'와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대구사학』 95.
- 周旻美, 2003, 「통일신라시대의 金工技法 研究-佛舍利莊嚴具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4.
- _____, 2004a, 「唐代 慶山寺 地宮 出土 佛舍利莊嚴의 新研究」, 『中國史研究』 29.
- _____, 2004b, 「韓國 佛舍利莊嚴에 있어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意義」, 『불교미술사학』 2.
- _____, 2006, 「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 『미술사와 시각문화』 5.
- _____, 2009a, 「〈墨書紙片〉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 _____, 2009b,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佛舍利 再埋納과 莊嚴方式 研究」, 『美術史學』 23.
- _____, 2011, 「韓日 古代 佛舍利莊嚴의 比較 연구」, 『불교미술사학』 12.
- _____, 2014a, 「新羅 舍利莊嚴方式의 형성과 變遷」, 『新羅文化』 43.
- _____, 2014b, 「模倣과 再現-南宋 皇室의 寧波 阿育王塔 供養과 그 影響」, 『中國史研究』 93.
- _____, 2017, 「불사리장엄구의 문화적 양가성」, 『진단학보』 129.
- _____, 2018, 「吳越國과 韓半島의 佛敎文化 交流 新論」, 『역사와 경계』 106.
- 秦弘燮, 1997, 「佛國寺三層石塔內 舍利莊嚴具」,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陵』,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최연식, 2008a,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불국사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과 사리장엄』, 2008년 한국목간학회 제1회 정기발표회.
- _____, 2008b,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105.
- _____, 2012,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불교학보』 61.

한정호, 2008,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小倉堧의 傳 경주 남산출토 사리 장엄구」, 『미술사논단』 27.

黃壽永, 1976, 「佛國寺의 創建과 그 沿革」,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A Study on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Bulguksa* Temple

Joo, Kyeong-Mi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 famous three storied stone pagoda, or *Seokgatap* in *Bulguksa* temple in *Gyeongju*, Korea. The reliquaries were found in 1966 during the reconstruction work of the stone pagoda. However, the full report on those artifacts from the pagoda had not been published until 2009.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full report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many new researches on them have followed. The most important new artifacts in the report are the three kinds of manuscripts written in 1026 and 1038, when the repair works of the stone pagodas were held in Goryeo dynasty. These manuscripts of Goryeo dynasty revealed many new historical facts on the history of *Bulguksa* temple. The pagoda was repaired again in 2012-2013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ea. During this recent repair work, some more hidden artifacts in the pagoda were rediscovered and reexamined.

In this article, I review these new researches on the Buddhist reliquaries of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especially focusing on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reliquaries and on the special Dharma relic cult based on the Pure Light Dharani Sutra, which was prevalent in the Unified Silla Buddhism. The whole reliquary set of this pagoda is consisted of various Buddhist relics and artifacts made both in the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

They illustrate not only the wonderful and creative inheritance but also an artistic syncretism of a long tradition of Korean Buddhist relic cult.

Key Words : *Bulguksa* temple, stone pagoda, *Seokgatap*, *Dabotap*, Buddhist reliquary, Pure Light Dharani Sutra, Dharma relic